



발전노조 제72차 중앙위원회 개최

- 해고자 복직투쟁 계획 수정, 위험의 외주화
철회 투쟁 향후계획 등에 대한 논의 이뤄져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발전3사(동서, 남동, 서부)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 참여키로

현재 발전노조는 해고자 7명(동서발전 3명, 남동발전 3명, 서부발전 1명)의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
중에 있다. 작년 하반기 남동발전 해고자 2명이 복직한 이후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동서발전이 해고자 복직에 대하여 가장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발전노조는 지난 2월 20일 개최된
2019년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서발전 사장 면담을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동서발전
본사 타격투쟁을 결정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발전노조는 2월 말 동서발전 전무와의 면담에서 동서발전이 해고자 복직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전무는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발전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
에 따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을 위한 노·사전문가 통합협의
체가 구성되었고, 현재 동서발
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모두

박주석(울산화력) 김동성(태안화력)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울산화력지부
조준성(삼천포화력) 이호동(울산화력) 윤유식(울산화력) 전승욱(여수화력) 남성화(영흥화력)

해고자 원직복직 즉각 실시하라

▲ 발전노조는 지부 이름으로 해고자 원직복직 현수막을 각 사업소에 게시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지난 3월 14일 개최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수정하여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한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위험의 외주화 철회 투쟁 후속대책 경과 및 발전노조 활동계획

작년 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투쟁한 결과 2월 5일, 정부와
여당은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 합의했으나 한 달 정도 연장 할 수 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 **앞면에서 이어집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향후 주요활동은 태안 석탄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9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수립에 관한 자문과 권고이다. 6월 30일(또는 7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또한 개선과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은 발전5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 노사전협의체 구성은 발전5사가 지난 1월 23일 공공운수노조와 당사자인 발전노조 한산발전지부를 배제한 채 협의체 노동자 대표 선정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구성의 실타래가 잘 풀리지 못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3월 14일 제72차 중앙위원회에서 연료·환경설비 공공기관 신설은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였다. 또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적극 협조하며 발전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 외에도 탈석탄 정책 대응,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을 핑계로 복지축소 금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보 방안 모색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전노조 홈페이지(baljeon.ndong.net) [소식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노조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발전노조 중앙사무실이 서울 삼성동에서 서울 가산동으로 이전했다. 3월 14일, 제72차 중앙위원회 종료 후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발전노조 1대 수석부위원장으로 2002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이끌었던 김순섭(보령화력지부) 동지의 퇴직행사도 함께 진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새로 이전한 발전노조 중앙사무실에 조합원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오시는 길

주 소 : (08503)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SK V1센터 1110호)

지하철 :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왼쪽에 건물이 보입니다.

